

AURI BRIEF

No. 4 2009. 5. 25

좋은 건축 · 도시환경 만들기 : 실천방향과 그 사례

- 건축과 도시환경에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도시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도시가 아름답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매력적인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데 비해 우리의 도시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당연히 우리의 건축과 도시환경에서 디자인 역량은 서구의 선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우리의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산업 분야의 디자인 능력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을 비롯한 도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질적인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로 가로시설물이나 간판 등과 같이 개별 요소의 디자인 개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마다의 특화된 방향 설정과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것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건축 · 도시 분야의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좋은 건축 · 도시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9가지 실천방향은 '좋은 건축 · 도시환경 만들기'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유념해야 할 원칙에 관한 것이다.

1. 우리나라 건축·도시환경의 현실

우리 건축·도시환경의 문제점

현재 우리의 건축과 도시환경의 문제점들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불편하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공간, 기능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공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미관을 강조하는 공간, 주민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공간, 공공성이 부재하여 고립된 공간,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공간 등이 그것이다.

열악한 건축·도시환경의 원인

이러한 열악한 현실의 원인을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찾아보면,

- 먼저 기획 또는 구성단계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시각적인 미관개선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기보다는 기능 또는 담당 부서에 따라 요소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방식,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관주도적인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획일적으로 반복 되는 사업방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절된 행정시스템,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된 폐쇄적 시스템, 형식적인 주민 참여방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나 지원조직의 부재 또는 불분명함,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 중심의 사업진행방식 등이 원인이 된다.
-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물에만 관심을 두고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현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지적된 여러 원인들의 근원에는 건축·도시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지역주민, 관련 이익단체, 행정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 사이에 좋은 건축·도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이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2.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9가지 실천방향과 사례

다음에 제시하는 9가지 실천방향은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지켜야할 기본방향이며 원칙이다. 이러한 실천방향은 새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좋은 건축과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제까지 조금씩 실천해왔던 것으로,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좋은 건축·도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게 될 것이다.

장소의 가치 향상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드는 목적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있다. 따라서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출발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와 프로그램을 공간에 담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림11 전주 남부시장의 하늘정원은 건물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장소 가치를 재생시켰다.

부분보다 전체

통합적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적 건축과 도시환경의 조성은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통합적 계획은 건축·도시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출발하여 이를 관리하는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장기적인 계획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림2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영주시는 공공건축의 통합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성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상의 전환

건축과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열악한 공간이 건축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그런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림30 각종 문제를 야기한 파리 뒤편 생드시 지역의 A1고속도로 위에 공원을 조성, 지역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사람들은 건축과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반해, 이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분야별로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4⁹⁾ 금산 다락원은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해 시설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

적절한 전문가 활용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제공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적용자, 사업의 기획자, 계획의 수립자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좋은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5 무주군은 건축가 청기움을 민간전문가로 활용하여 수요자 위주의 공공건축을 조성하였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어떤 공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 지역 주민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주민들에게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건축과 도시환경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림6¹⁰⁾ 마포 성미산 마을은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변화를 위한 의지, 대안 모색 모두가 주민들의 경험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다.

다양한 주체의 협력

대부분의 건축과 도시환경은 복잡한 문제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 배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7 부산 광복로 시범사업은 행정, 전문가, 주인이 함께 만들기 위한 체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점진적 사업 추진

우리는 언제나 완성된 결과물만을 놓고 사업의 성패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도 우리가 디자인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림8 마산 부림시장 프로젝트. 젊은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택하였다.

지속적 관심

좋은 건축·도시환경의 80%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되는가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림9 대구 삼덕동은 지역의 시민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오랜 시간 참여와 관찰을 통해 주인과 함께 호흡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민의식과 참여를 향상시켰다.

1) www.jeonlode.com
 2) Ariella Masboungi(2002) 'French Urban Strategies', Le Moniteur
 3) www.daragwon.net
 4) www.mapocoop.org

3. 더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

- 앞에서 제시한 9가지 실천방향은 협력적(collaborative) 디자인, 총체적(holistic) 디자인, 프로세스(process) 디자인으로서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실무자가 건축과 도시환경 관련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행동지침으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실천방향과 사례는 우리 건축과 도시환경의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건축·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9가지 실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현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좋은 건축·도시환경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환경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각 주체들의 역량 또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좋은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공감대 마련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031-478-9642, smlee@auri.re.kr)